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

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는 몇 가지 '인식적 오류'에 직면해 있다. 첫째, 방향(목표)이 옳으면 방법(수단)이 다소 거칠고 투박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현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다.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다. 이런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 수단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한다. 그런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 효과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층 일자리는 줄어 들고, 물가는 상승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도 최저 임금

인식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인상에 반발하는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절벽, 생산 부진, 경기 비관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도 내리막을 걷고 있다. 한국 껍질 조사(7월 24-26일) 결과,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2%로 6주 연속 떨어져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대로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8%로 역대 최대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7%)이 압도적인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12%)이 뒤를 이었다. 방향과 방식의 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다.

둘째, 주류 세력이 교체되어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듯하다. 정권이 교체된 것은 넓은 의미에서 주류 세력이 교체된 것이다. 그런데 정권을 잡은 세력이 권력을 이용해 사회 주류 세력을 교체하겠다는 것은 자칫 권력의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야당 인사를 장관에 임명하는 협치 내각을 제안했다. 국민 통합을 이루

고 국회에서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그런데 한 손엔 적폐 청산을 통한 보수 주류 세력 교체, 다른 한 손에 야당과의 협치를 내세우면 꾀수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주류 세력이 교체되지 않아서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혁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주류 세력은 권력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국민만이 교체할 수 있다.

셋째, 대통령 친정 체제가 구축되어야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사고다. 그 일환으로 집권 초기부터 총리와 내각 대신 청와대가 정치의 중심이 되었다. 최근 청와대는 국민 홍보, 정책 조정, 연설 기획 등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무 각 부처의 정책과 홍보에 대한 청와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모든 현안을 챙기는 만기진람의 행태를 보일 때 역설적으로 국정 효율성은 떨어진다. 5년 단임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경험적으로 입증된 법칙이 있다. 새 정부 출범이후 1년 6개월 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

과를 내놓지 못하면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고, 그 실망이 분노를 넘어 협으로 치달으면 민심이 폭발한다. 올 연말까지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고 정책 목표가 시대 정신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착각이다.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지지 않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젠 경제 정책 핵심 기조를 소득 주도 성장에서 혁신 성장으로 전환하고, 이념적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류 세력 교체론에서 벗어나고, 총리와 내각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통령이 적기에 정부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경제는 휘청거리고, 협치는 사라지며, 민심도 크게 이반될 수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종교칼럼



조진무
피아노 피아니스트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말하는 것 공짜/ 꽃향기 맡는 것 공짜/ 하늘 보는 것 공짜/ 나이 드는 것 공짜/ 바람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재미 보는 것 공짜"

박호현의 '공짜'라는 시(詩)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라네요. 지난달 인터넷 상에 올라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놀라움을 주었다는군요. 선생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고 보는 어린이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눈이 따로 있고, 그런 창의적인 생각에다가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까지 더해져서 우리 어른들이 보지 못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어린이들의 맑음이 혼탁한 어른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경우가 때때로 있기는 하지만..... 요즘같이 재난 수준

공짜 없는 세상, 모든 것이 공짜인 세상

의 폭염에 시달리고, 기사사의 계명령 검토 문건이나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 문건처럼 평정심으로 듣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화나오' 뉴스들을 접하는 이때, 저 '공짜'라는 시가 더욱 돋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세상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공짜가 없는 어느 선생님의 세상도 있고, 모든 것이 공짜인 어느 초등생의 세상도 있을 터, 같은 하늘 아래의 세상이지만 바라보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 달리 보이는 세상들이 존재합니다. 똑같은 달력의 날짜를 바라보지만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가에 따라 어느 처지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 그 날짜의 숫자의 색깔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청산되고 있지 않은 예를 들면 이렇 것 같습니다. 돈맛과 권력 맛에 취해 삼권분립이 원칙인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흔들면서까지 국정(國政)을 기업 경영처럼 삼았던 이명박 정권 때나 양정-군주 정제(政體)로 착각했던 박근혜 정권 때에 그 밑에서 온갖 사익(私益)을

챙겼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수십 년 동안 국가와 동족의 무관심 속에 버려져 있다가 평화의 소녀상으로 부활하여 생의 마지막을 '평화 나비'로 날아가신 '일부군 성폭력 피해자' 할머니들의 세상, 또 부당 해고로 인해 수 년 동안 복직 투쟁의 고통 속에서도 '함께'의 가치를 공유한 KTX 승무원들의 세상과는 분명 다른 세상입니다.

앞의 세상에서는 공짜가 없어서 매년 양심과 법과 상식을 그 대가로 지불하며 사람이면서도 사람답게 살고 있지 않은 세상이지만, 뒤의 세상들에서는 자연이 주는 모든 것에 대한 고마움이 배어 있고, 함께 그 고마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심지어 나이 먹는 것이나 대화와 미소와 껌까지 공감하는 것조차도 공짜 선물로 바라보게 되는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린이들이 때로는 어른들의 스승입니다. 저는 산 속에 살면서 특히 이 계절에 더욱 자주 보게 되는 수많은 곤충들이 공짜인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개미나 거미, 나방 같은 곤충들을 없애려고 한

지 공짜로 바라보며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짜'라는 이 시가 저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역설적인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느님 나라의 신비는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인 당시 율법 학자들에게는 이해가 어려웠던 것처럼 어찌만 오히려 '철부지'로 표현되는 당시 제자들이 곧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지혜를 갖추지 못한 그들에게는 더 쉽게 이해되어 잘 드러나게 된다는 가르침!(루카 10, 21 참조)

모든 것이 공짜인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공짜'라는 멋진 시(詩)를 쓴 이 어린이가 먼 후일에 어른이 되었을 때, "옛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맞았었구나"라고 느끼지 않게 되는 그런 세상, 자연과 이웃이 나에게 주어진 공짜 선물로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세상에서 살기를 희망해 봅니다. 심지어 '개미'까지 생명과 살아 있음으로 바라보면서 내 주위의 모든 것이 공짜 선물임을 감사하게 느끼면서 이 혹독한 공짜 없는 세상을 이겨내고 싶습니다.

기고



이동범
수필가·전 광주교총회장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세계적이 뚜렷하여 살기 좋은 나라이다. 게다가 우리 민족은 예의 바르고 정직하며, 연행이 빠르기 때문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단일 민족으로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러 여기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최근 들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청소년들이 때 지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 청소년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 보면 표현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내용이든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비속어나 욕설, 불평과 원망의 말을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가장 순수하고 맑아야 하는 청소년들의 입에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거친 말을 쓸 때 마음이 아프기도 하다. 하루는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80세

언품(言品)

좁아져 보이는 어르신이 버스를 타게 되었다. 그 분이 자리를 잡으려고 하시면서 큰소리를 치며 '이게 도대체 공중도덕이 어떻게 된거야?'라고 하면서 폭언과 욕설을 하는 것이다. 이유인즉 승객들이 차의 통로 쪽에 모두 앉아서 창문 쪽 자리로 가기가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청소년들과 노인의 사례에서 볼 때 언어는 정말 중요하다. 하 나비에게서 동물과 달리 우리 인간에게 주신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을 통해 상대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칼로 할은 상처는 치유될 수 있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치유하기 어렵다.

우리 속담에 '말 한 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말 한마디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말을 주의해서 사용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우리 인간에게 귀가 두 개인 것은 남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입이 하나인 것은 입을 무겁게, 말 조심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사회의 모범이 되고 언품을 지켜야 할 일부 정치인들이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폭언과 막말을 사용하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경우가 허다하다. 뿐

만 아니라 골지의 재벌들이 직원들에게 했다는 막말과 욕설 등 언어 폭력은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의 말이 실수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 전체를 모욕하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언어를 만들고 언어는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사람 사이에 오고가는 말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의 언어는 중병에 걸려있는 느낌이 든다. 어려운 전문 용어나 외래어, 비속어, 신조어 등이 일상생활에서 남발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예를 들면 매뉴얼, 팩트, 미투, 패싱 등 외래어와 새로 조작된 불매, 금사빠, 소확행 등 수많은 말들이 일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야구 경기 중계시 투수가 공을 '뿌린다'라거나 1루에서 2루로 공을 '뿌린다'라고 하는 말은 '던진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친구들이 만나서 점심을 먹게 될 때 "오늘 점심은 내가 쓴다"라든가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내가 한턱 쓴다'라는 말이 상용되고 있는데, 이는 '내가 산다'나 '내가 낸다'라고 하면 알기 쉽고 바른 말이 되지 않겠는가? 이상한 은어와 말들이 유행되어 고운 우리의 말이 퇴색되어 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에매모호한 말, 거친 말, 폭언 등이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기능에 대한 자기 점검의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 격식과 품위를 갖춘 언어 사용의 주체가 바로 자신이어야 한다. 남을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의 역할에 대한 가치를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 맑은 공기와 물처럼 맑은 언어가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 말만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보다 상대의 입장에서 남을 배려하는 말을 사용한다면 다툼이 없을 것이며 평화롭고 성숙된 사회가 될 것이다. 맑은 하는 사람의 내면을 보여준다고 한다. 또한 맑은 그 사람의 외모와 품격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지적이고 공상하게 외모를 갖춘 사람이 상스러운 말을 하면 '보기와 다르네'라고 핀잔하게 된다.

얼굴과 같은 외모로도 사람의 됬됨이를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구사하는 말의 내용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한다.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는 인품이 무의식중에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말이라고 할 수 있으니 언품을 지켜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새삼 느끼게 한다.

社說

'스마트팜 벨리' 탈락 농도 전남 무색하다

전남도가 미래 첨단 농업의 대안으로 유치에 공을 들이온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서 탈락했다. '농도 전남'을 표방해 온 전남도 입장에서 미래 첨단 농업을 선점할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보통신기술(ICT)을 토대로 농산물의 생산·교육·연구 기능을 갖춘 일종의 첨단 농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모에는 전남을 포함해 경기·충남 등 8개 도가 신청했는데 결국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가 선정됐다. 선정된 지역에는 1800억 원이 투입돼 청년 농업인 인력 양성과 기술 혁신 등으로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이 이뤄지게 된다.

그동안 자치단체들이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것은 단순히 특정 농산물을 4차 산업 기술로 재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유통·수출 등 농업 전반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에도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었다. 전남도도 유치 전남 TF팀과 추진단을 구성해 부지를 기존 면적 이상 확보하고 바나나를 수입 대체 작목으로 선택하는 등 유치에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하지만 앞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전남도는 스마트팜을 해남·영암 간척지 개발 지역인 '솔라시도'에 조성해 자연스럽게 솔라시도 활성화를 꾀할 생각이었다. 스마트팜을 토대로 솔라시도를 스마트시티로 확대하는 큰 구상을 그렸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탈락은 매우 아쉽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2차 선정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로 두 곳을 선정할 계획인데 마지막 기회인 만큼 철저한 준비로 유치에 성공해야 한다. 그리하여 스마트팜을 첨단 및 기술 집약적인 농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아 명실상부한 '농도 전남'의 명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불편해도 이젠 미래 위해 일회용품 줄이자

일회용품 사용 단속이 지난 1일부터 실시됐지만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일단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 가게 등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하지만 광주일보 취재진이 단속 현장을 동반 취재한 결과, 대다수 점포들이 일회용품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상당수 카페들이 점심 때 물리는 손님을 감당할 만큼의 머그잔을 준비하지 못한 탓에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고 있었다. 물론 머그잔을 준비한 곳도 많았으나 고객들이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바람에 사소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컵을 씻을 수 있는 싱크대조차 없이 일회용 컵만을 쓰는 소규모 카페도 있었다.

이미 우리의 해양과 도양은 비닐과 플라스틱으로 오염됐다. 어느 해안의 굴·조개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지도 오래다. 비닐류는 간과 신장 장애 및 생식 기형을 유발한

다. 매립해도 분해되는 데 500년 이상 걸리는 토양 오염의 주범이다. 비닐·플라스틱류는 미래 환경과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인 것이다.

미국은 일회용품 규제와 함께 플라스틱 빨대 퇴출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프랑스는 오는 2020년 썩지 않는 일회용품 사용의 전면 금지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들의 참여 열기가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일회용품 규제에 이어 올 연말부터 마트와 슈퍼마켓 등의 일회용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한국의 1인당 비닐봉투 사용량은 연간 414장이며, 비닐 및 플라스틱 소비량도 세계 1위이다. 일회용품을 줄이는 일은 환경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시민 모두가 비닐·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친환경 소비문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자체도 일회용품 퇴출에 동참하는 업소들의 애로 사항에 귀를 기울여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정부는 대형 프로젝트나 사업을 발의 때 흔히 학계나 민간 연구소 관계자 등 전문가로 불리는 집단을 동원한다. 관료보다 학계나 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리기 때문이다. 정권이 전문가 집단을 동원한 사례는 술하게 많지만, 그중 압권은 '평화의 댐' 건설일 것이다. 당시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은 연일 언론에 등장해 정권의 안보 논리를 뒤흔치며 논쟁의 열안이었다.

'북한의 금강산댐이 붕괴되면 서울이 물바다가 된다'며 국민

나쁜 전문가들

아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사실상 4대강 훼손 사업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홍수와 가뭄 해결은커녕 환경 파괴를 몰고 온 사례로 꼽힌다. 어김없이 이 사업에도 토목·수질·생태 전문가들이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여러 논거를 댔다. 그 공헌으로 훈·포장이나 표창 등을 받은 학계·관련 단체 인사만도 80여 명에 달한다.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기업가까지 합치면 무려 1152명이 '상 잔치'를 벌였다.

이후 세상이 변하고 정권의 프로젝트 물바다가 된다며 국민

에 동참했던 이들은 훈·포장 등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4대강 사업 유공자에게 정부가 수여한 훈·포장을 취소하기 위한 '상 훈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혼 없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논리를 창조하거나 핵악이 큰 사업을 주도하는 이들에게 경총을 울리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의 취지는 '자연형 정'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못내 씁쓸하기만 하다. 그동안 전문가로 불리는 이들이 전문성은 물론 사람의 기본인 양심조차 지니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윤영기 사회부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燦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기자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